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무게 제24744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동지, 김의순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데서 영화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만화영화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므로써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57년 9월에 창립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굴지의 만화영화 창작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촬영소에서 창작한 만화영화들은 어린이들만이 아닌 각계층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생활과 투쟁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으며 우리 만화영화에 대한 국제적인기도 끊임 없이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영화화면에 옮긴것을 비롯하여 수백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세계적규모에서 주문 및 합작만화영화들도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책적대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현대화, 과학화, 컴퓨터화, 수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창작지도력량과 창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계발시키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능력있고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만화영화의 발전동향과 추세를 잘 알수 있게 자료연구기지를 더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창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수 있게 살림집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는것과 함께 정상수영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만화영화는 독창성과 매력, 높은 형상

수준과 빠른 창작속도로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오래전부터 세계만화영화계에 진출한 우리의 창작가들은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어 우리가 도달한 만화영화제작기술을 넘김없이 떨치였다고 하시면서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만화영화제작에 큰 힘을 넣어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

화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화영화제작에서 지체적교양의 영화라는 고정적식화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주제범역을 넓히고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주제이주의, 집단주의, 계급교양 등에 이바지하고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키워주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청소년들과 학생들,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 알수 있게 역사물주제의 만화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촬영소에서 이미전에

만든 만화영화 《소년장수》는 인기가 대단했다고, 지금은 50부에서 끝냈는데 앞으로 100부까지 더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연속편으로 만드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상무기풍, 미용양속,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이야기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창작방향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화영화들을 잘 만들자면 반복과 도식에서 벗어나 종자선택과 주제설정을 바로하며 즐거리를 재미나게 엮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만화영화제작에서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배치되는 흥미본위주의, 자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주제적인 관점에서 정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

흥건도간석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

길이 전해가리,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2년 수개월의 날과 달이 흘렀다. 첫 발파의 동음이 높이 울린 그때로부터 800일의 낮과 밤을 이어온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흥건도간석지가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여러 섬들을 묶고서 연결하며 1호, 2호, 4호방조제가 날마다 우로 장대하게 뻗어갔다. 수천정보에 달하는 간석지벌을 한뼘에 그려안으며 수천m의 3호방조제가 두 전선에서 서로 마주 향하여 전진하고있다.

섬과 섬을 이으며 날마다우에 시원하게 뻗어나간 방조제우에서 먼 조국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진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와-와- 격정을 터놓고있고 사시정철 사나운 날마다우에서 한치도 한치 조국땅을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뜨겁게 젖어온다.

이곳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

동계급은 흥건도간석지건설에서 참으로 자랑할만 한 로력적 위훈을 이룩하였다. 평안하는 자연의 횡포를 길들여야 하는 간석지건설자들에게 과연 무슨 애로와 난관인들 없었겠는가. 하나 간석지건설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났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방조제 한가운데 큼직하게 새겨진 불멸의 글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겨주신 신념의 구조를 바라볼수록 최영덕, 강성철 등우를 비롯한 책임일군들로부터 제방 한뼘의 신호공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심장에 뜨겁게 용솟음치는 것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자연이 이기는가, 인간이 이기는가? 엄혹한 자연의 광란앞에서 간석

지건설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긴다. 절세의 애국자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자연을 이긴다! 간석지건설자들의 눈앞에 우렁이 안겨오는 것이 있다. 유화작품 《대계도간석지의 저녁!》

박산간석지 2계단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며 흥건도간석지건설준비로 온 연합기업소가 높고있던 두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곳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 보내주신 이 유화작품은 간석지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을 한없는 격정과 환희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그 화폭앞에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을 대계도기적의 창조자들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런 간석지건설자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화작품앞에서 이루어졌던 고난의 시기 우리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어 대계도의 기적을 창조하였던 그날의 투쟁기풍으로 거창한 대자연개조

개척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주시며 간석지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불사신의 용맹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환풍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였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이렇듯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성과를 이 곳 로동계급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며 **《김일성동지의 후손들답게 일했소!》**라고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속에서 이 곳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계도간석지와 더불어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혈불굴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들로 높고있는 삶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런 간석지건설자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화작품앞에서 이루어졌던 고난의 시기 우리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어 대계도의 기적을 창조하였던 그날의 투쟁기풍으로 거창한 대자연개조

전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 하라는 절세의 애국자의 한없는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그 총정의 맹세를 담아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동지들의 불굴의 정진과 혁혁한 성과를 당중앙은 높이 평가합니다.》**

김 정 은
2012. 4. 27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은 그대로 기적을 낳는 원천이다.

흥건도간석지건설자들은 실천 투쟁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였다. 지난해 12월말 완공된 4호방조제의 수심m구간이 꺼져내리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내려앉은 방조제구간으로 바다물이 덮쳐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상할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은 련합기업소가 떨쳐나섰다.

결룡과 맞돌이로 돌과 흙을 나르고 온몸이 그대로 방파제가 되어서라도 기어이 방조제를 지켜내려는 절사의 각오와 투지가 길길이 날뛰는 바다의 먹음 틀어잡고있었다. 하루낮, 하루밤의 결사의 투쟁으로 수백m의 돌과 흙을 운반해놓으면 또다시 그 모든것이 순간에 바다물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기를 10여번...

하나 용감한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지는 더욱 배태해졌다. 한겨울의 차디찬 바다바람도, 와-와- 소용돌이치는 바다물도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낮에 밤을 이어 결사전이 벌어졌다. 그해의 마지막밤도 그들은 이렇게 싸우며 방조제우에서 새날을 맞이했다.

침체내 해가 밝아왔다. 또래오는 련합과 더불어 방조제는 또다시 바다를 막고 끄떡없이 솟아올랐다.

바로 그 방조제우에서 새해의 아침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격정에 젖어 **《단체!》**의 환호성을 울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심장의 목소리에 짓눌려온 듯 서해의 검푸른 파도도 같기를 속이며 조용히 처절격격거릴 뿐이었다. ...

간석지제방은 이렇게 뻗어가고 있다. 1호, 2호, 4호방조제에 이어 오늘은 3호방조제가, 조국땅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에 떠받들려, 총정의로 높이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에 의해 내 조국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있다.

제방성토에 필요한 수백만m³의 돌과 흙을 보장하기 위해 다사, 보산, 장송, 로하, 석화, 판산 간석지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산지주와 석화지구에서 대방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고 3호방조제에 필요한 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련합기업소에서는 안산지구에서 수심만산대방파를 진행할것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그 소식은 굴진을 맡은 사업소일군들을 긴장시켰다. 수만산도 아니고 단번에 수심만산을 대방파로 통째로 날려보내는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기일은 불과 몇달!

도갱굴진을 위해 사업소들이 총동원력을 벌리던 어느날이었다.

련합기업소 현장지휘부 책임자인 기상장 서원길동무는 안산지구의 도갱전투장에서 석수가 예상외로 쏟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레우가 없는 상태에서 버려져있는 돌은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없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도갱입구에서부터 물이 발목을 쳤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석수량이 많아졌다.

한동안 굴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그의 귀가에 뜻밖에도 지면적벽 물줄기가 흐르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그들은 다간석지건설사업소 1직장 당세포비서 조정수동무와 작업반장 박은철동무들이었다. 다가오는 그들의 얼굴에 혼연한

웃음이 비껴있었다. **《굴진은 순간도 멈출수 없습니다. 굴진실적이야 제방길이 아니겠습니까.》**

《달아오른 몸을 석수에 식히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들은 절절 웃으며 말했다. 다만 기상장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이런 각오, 이런 배짱을 안고 모두가 떨쳐나섰다. 석수를 맞받아 한치한치 압박을 열어제끼는 긴장한 전투로 날과 달이 흘렀다. 조급일군들이 앞장서서 착암기 등을 울리며 압박을 뚫고 나갈 때 로동자들은 감항을 헤치며 버림을 실은 광장을 련속 끌어냈다. 폐대를 마친 굴진들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수고했다고, 꼭 쉬라고 권고하였지만 그들은 이동식 사수를 마치고는 그대로 또다시 막장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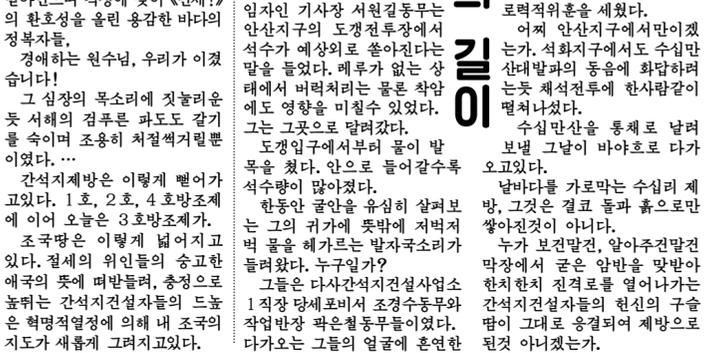
이런 세찬 공격전으로 안산지구의 수심만산대방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맡은 사업소들에서는 교대별굴진계획을 일당겨 수행하며 한달은 걸린다고 하던 도갱굴진계획을 열흘이나 앞당겨 세대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어찌 안산지구에서만이겠는가. 석화지구에서도 수심만산대방파의 동음이 화답하려는 듯 제석전투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섰다.

수심만산을 통째로 날려 보낼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날마다를 가로막는 수심리 제방, 그것은 결코 돌과 흙으로만 쌓아진것이 아니다. 누가 보진않고, 알아주진않는 막장에서 굳은 안판을 맞받아 한치한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의 기술, 땀이 그대로 응결되어 제방으로 뿔뚝 아니겠는가.

본지건설이 곧 제방의 길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제석장에서 제방끝까지는 불과 천수백m, 길지 않은 운행거리이다.

하지만 순간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운행거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수m폭의 제방과 우천에서는 바다물이 출렁이고 있다. 이차 실수하면 자동차가 바다속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다사기계화사업소 대화화물자동차 2551호 운전사 문봉은 동무의 얼굴에는 만만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제석장에서 차적제함에 용증하게 큰들을 실고있는 유압식굴착기운전공에게 손사놓을 하며 싱긋 미소를 보였다.

우리가 무슨 뜻인가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술가락으로 밥을 닦듯 적제함에 돌을 차곡차곡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한m³ 더 실**

자는것입니다.》

이유하여 적제에 끝났다는것을 알리는 신호소리가 울렸다. 방릉-

부동소리에 이어 2551호는 제방으로 향하였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내달린다. 순식간에 차는 제방끝에 당도하였다. 불과 수m폭의 제방에서 운전

동무의 모습이 미묘하게 안겨온다. 차를타고, 제방차반이, 짐부리 등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들어갔다.

어느 자동차는 제석장에 다달았다. 문봉은동무가 운전하는데 홀짝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굴착기가 돌을 퍼담는 동안 차바퀴상태를 간간히 살펴본다.

이런 간석지건설자들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화작품앞에서 이루어졌던 고난의 시기 우리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어 대계도의 기적을 창조하였던 그날의 투쟁기풍으로 거창한 대자연개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국자란 침오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 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입니다.》**

간석지건설자의 자국은 결코 제방우에만 적혀있는것이 아니다. 여기는 바다물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있는 배수문공사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이 기초공구리트기작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사업소기상장 정대식동무의 열

현지 보도

들어 편일 휘틀조립속도를 높여 나가고있다.

휘틀조립이 끝나면 바쁘게 혼합물이 쏟아진다. 오면 간석지건설자 3직장 직장장 김중현동무가 먼저 삼을 들고 휘틀력에 자갈들만 놓이지 않게 흩어진 자갈들을 불탈에 끌고루 섞는다.

《직장장기야, 우리가 못미더우시인가요?》

2직장의 장광성동무의 그 말에 김중현동무가 연쇄와 다름없이 웃음소리로 현내내 한다.

《간석지는 나라의 만년재보야. 방조제가 든든하면 이 배수문이 크면없어야 해. 그 어떤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짧은 로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알았습다!》**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천둥소리같은 동음이 더욱 높아진다. 다짐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미장칼로 기초공구리트면을 유리판처럼 만들만큼 하게 미장해가는 오랜 기술공인 리영철동무, 그뒤를 따라 제대군인 신경복동무도 나무밑에

는 일출세를 보인다. 공사장의 (전소리)직장장은 물론 새 세대 건설자들의 가슴속에도 오직 하나 배수문을 그 어떤 해일에도 끄떡없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건설할 결심뿐이다.

이제 완공의 그날이 오면 배수문바닥은 바다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적어가는 항성의 자국은 황금나무설레이는 간석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그들의 불타는 마음이란듯 건설장에 나붙은 **《행복한 레일을 위한 길에 땀을 아끼지 말자!》**라는 글발이 저녁노을을 밝아 더욱 확연히 드러내며

힘을 넣었다. 작업도로주변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그 면모를 일신시켰고 합숙주변에는 수심구루의 파인나무를 심고 꽃밭과 잔디밭을 조성하였다. 집집중우리며 부엌까지도 잘 꾸려놓아 후방공급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었다.

정든 집, 간석지건설자들은 현장합숙을 누구나 이렇게 부르고있다. 회결과 방만에 넘친 그들의 가슴은 보다 큰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끓여번지고있다.

동승기

한탕 더! 한m³ 더!

사는 제치있게 육중한 차를 돌려 적제함을 제방끝에 들이낸다. 그걸에 얹은 우리는 한순간 마음이 긴장해졌다.

하지만 문봉은동무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질줄 몰랐다. 입가에서는 마치 노베소리가 울려나오는듯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석지운전사가 아닙니까. 담이 없으면 이 날마다와 어떻게 싸워이겠습니까.》

신호공의 신호에 따라 차는 정확히 제 위치에 막돌들을 쏘는다. 물보라가 휘뿌려진다. 이윽하여 차가 울렁거리며 다시 제방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달린다. 조향틀을 틀어던 문봉은

말하였다. **《교대운전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탕 더 뛰어야겠는데...》**

교대시간이 다된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자기 교대에 2551호를 돌려주었다. 사업소적으로 제일 앞섰지만 그는 마음의 랑계를 늦추지 않고있었다.

한탕만 더- 굴착기운전공에게 손신호를 보내는 그의 입에서 금방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듯했다.

우리는 또다시 제방우로 출발하는 2551호에 손을 들어 인사사를 보냈다.

위훈! 그것으로 하여 간석지건설자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 아니라.

축하의 모두가

꽃목걸이가 간석지건설전투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에게 안겨진다.

뜨겁게 포옹하고 축하해주는 모습 수도를 멀리 떠나 10여년동안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가결명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

제방우리에 은빛을 바쳐가는 평범한 로동자들... 혁신자, 그 부름속에는 정든 수도를 멀리 떠나 10여년동안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가결명

위훈의 창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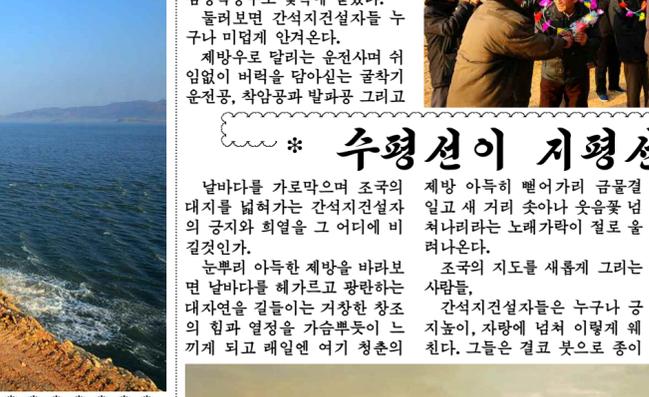
제방우리에 은빛을 바쳐가는 평범한 로동자들... 혁신자, 그 부름속에는 정든 수도를 멀리 떠나 10여년동안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가결명

위훈의 창조자

제방우리에 은빛을 바쳐가는 평범한 로동자들... 혁신자, 그 부름속에는 정든 수도를 멀리 떠나 10여년동안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가결명

위훈의 창조자

제방우리에 은빛을 바쳐가는 평범한 로동자들... 혁신자, 그 부름속에는 정든 집, 간석지건설자들은 현장합숙을 누구나 이렇게 부르고있다. 회결과 방만에 넘친 그들의 가슴은 보다 큰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끓여번지고있다.



*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될 그날은 멀지 않다 *

평양 건축 종합 대학 교육과 학성 과 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1년을 맞으며 교육과 학성 과 전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지난 1년간 교육사업과 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었다.

건축대학, 도시경관대학에서 출품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방사방향성설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내부형성설계들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진문협동농장 건축형성안, 평양민속공연 수렵각, 원림화계획, 평양시인민군력사보 원림계획 등이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보람, 살림집 및 산업건물 건축구조모형과 건축형성작성 모형들을 비롯한 교편물들이

학생들의 공간과 구조에 대한 표상능력을 높일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교육과 학성 과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주체의 건축발전에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대학의 교육과 과학 연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제방 아득히 뻗어가리 금물결 일고 새 거리 솟아나 웃음꽃 넘쳐나리라는 노래가량이 절로 울려나온다.

조국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사람들, 간석지건설자들은 누구나 긍지높이, 자랑에 넘쳐 이렇게 웨친다. 그들은 결코 붓으로 종이

장우에 선을 긋고 지도를 그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후더운 땀으로, 헌신적인 로동으로 파도세한 날마다우에, 수수천천 잡자던 강랑우에 조국의 모습을 새롭게 새겨놓는다.

비단설전으로부터 대계도간석지에 이어 흥건도간석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렇게 대를 이

어가며 걸어온 애국의 길은 몇 천만리이며 그 길에 바친 고귀한 땀과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해아릴것없다.

매일, 보다 휘황찬란한 레일, 여기 바다우에 오목백과 주령진드림은 옥도가 펼쳐지고 사회주의 선경마음들이 우후죽순처럼 밀려서는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

기에 이 아ыл 간석지건설자들이 터치는 기적의 환호소리 수평선 너머로 메아리쳐간다.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변모 될 그날은 결코 멀지 않다! 서해바다도 호응하듯 와-와- 파도쳐 설레인다.

글 특약기사 송 창 윤 사진 본사기자 신 충 력

로씨야방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해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